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The Income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in Poverty

임원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인가구원 유무와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가구를 유형화 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최근 들어 완화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독거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노인가구 내에서는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격차 해소방안과 함께 노인빈곤가구의 증가하는 지출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출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다 직관적이고 심도있는 파악과 함께 해당 제도들에 대한 엄정한 효과성 평가가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노인빈곤 문제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중 하나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복지 지출의 증가는 물론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인한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그 성격상 해결 방법이 제한적이면서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6년과 2013년의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빈곤율이 전체빈곤율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소비지출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1.7%에 이르며 2006년과 비교했을 때 7.1%p 상승하여 <표 1>에 나타난 빈곤율 중 증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중 2009년 노인빈곤율의 경우 전년도보다 가계지출 빈곤율은 약 6.6%p, 소비지출 빈곤율은 9.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경제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소득보다 지출 부문의 빈곤을 확대시켰음을 보여준다.

노인빈곤의 확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IMF 경제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경제충격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도

표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경상소득	7.6	7.8	8.0	8.4	7.9	7.8	7.6	7.7
	가처분소득	9.0	9.1	9.4	10.4	9.6	9.6	9.1	9.0
	가계지출	6.0	6.6	6.5	8.5	6.3	6.0	5.7	6.6
	소비지출	10.9	11.1	11.2	14.6	11.7	10.9	10.7	12.4
노인	경상소득	27.2	27.6	29.0	32.2	31.1	33.0	32.3	32.7
	가처분소득	30.6	30.9	32.4	35.5	34.3	36.1	34.8	35.6
	가계지출	24.4	25.0	25.2	31.8	26.1	26.6	25.5	27.8
	소비지출	34.6	34.4	35.6	44.6	39.7	40.8	38.0	41.7

주: 1) 원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제외), 각 연도

2) 소득 및 지출 정의 :

경상소득 =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가계지출 = 소비지출+비소비지출

소비지출 = 식료품 · 음료+주류 · 담배+의류 · 신발+주거 및 수도광열+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보건 · 의료+교통비+통신비+교양 · 문화+교육비+음식 · 숙박+기타

자료 : 임완섭 · 이주미(2014),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고, 2015년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을 통해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곤 감소라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들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지출 특성을 감안한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형태 및 해당 가구들의 소득과 지출 특성에 따라 빈곤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적 접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의 실시를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빈곤규모 추정과 함께 빈곤 노인

가구의 유형별 분포 및 소득과 지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에서 빈곤상태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빈곤수준은 파악할 수는 있지만 노인들이 속한 가구들의 빈곤상태는 알 수 없다. 또한 노인빈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빈곤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들의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먼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규모 및 빈곤 노인가구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율을 살펴본 후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을 비빈곤 노인가구의 특성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빈곤가구의 소득 및 지출특성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가구의 유형분류 및 분석방법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구성형태에 따른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 가구들은 주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그리고 그 외 기타 노인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유형의 세부적인 기준은 연구별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노인인 경우만을 지칭하는 경우¹⁾²⁾와 부부 중 한명만 노인이어도 노인부부가구로 정의하는 경우³⁾⁴⁾가 있으며,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기타 노인가구의 경우도 위 연구들에서는 ‘노인 비단독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노인가구’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능후·송미영과 여유진의 노인 가구유형별 분류 기준을 적용하되,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가구를 가구주가 노인인 ‘기타-노인가구주가구’와 가구주가 비노인인 ‘기타-비노인가구주가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빈곤규모⁵⁾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였다. 절대적 빈곤은 본 연구의 빈곤측정 적용 변수⁶⁾인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상대적 빈곤은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이 해당 중위 값의 50% 미만인 경우를 상대적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빈곤가구

표 2. 노인가구 유형 분류

유형		분류기준	
노인 가 구	노인독거가구	가구원수 1인 & 가구원 연령이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가구원수 2인 & 부부 & 가구원중 적어도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	
	기 타	노인가구주가구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노인가구주 + 동거가족
		비노인가구주가구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비노인가구주 + 노인 + 비노인 동거가족, 또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제외 & 비노인가구주 + 노인
비노인가구		가구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경우	

1) 이주미·김태완(2014),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14.6)

2) 정경희(2015), 노인부부가구의 생활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5.4)

3) 박능후·송미영(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6 봄호.

4) 여유진(2012),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 본 고는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이므로 빈곤율은 인구빈곤율이 아닌 가구빈곤율을 의미함.

6) 빈곤측정에 ‘가처분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총과 비빈곤총의 소득구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을 제시하지 않음.

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까지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적 기준선인 동시에 가구들의 최저생활 수준의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자료로 전국 가구의 빈곤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소득 및 지출 그리고 가구특성 관련

변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가 포함된 2006년 자료부터 활용하였으며, 놓여가는 제외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노인가구의 빈곤 및 유형별 구성 추이

가. 노인가구 유형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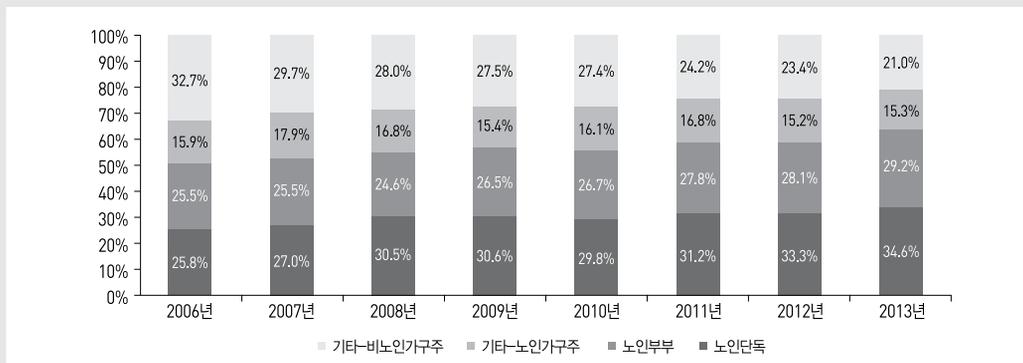
표 3.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분포 및 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 가 구	노인독거	5.7	6.3	7.4	7.2	6.9	7.6	8.7	9.5
	노인부부	5.6	5.9	6.0	6.3	6.2	6.7	7.3	8.0
	기타-노인가구주	3.5	4.2	4.1	3.6	3.8	4.1	4.0	4.2
	기타-비노인가구주	7.2	6.9	6.8	6.5	6.4	5.9	6.1	5.8
	노인가구(소계)	22.0	23.2	24.3	23.6	23.3	24.2	26.2	27.5
비노인가구		78.0	76.8	75.7	76.4	76.7	75.8	73.8	7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노인가구의 유형별 비중과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빈곤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절대적 빈곤(최저생계비 기준)									
경상소득	노인가구	26.0	26.4	27.6	31.1	30.0	32.0	31.7	32.2
	비노인가구	5.5	5.4	5.5	6.3	6.4	5.6	4.5	4.6
소비지출	노인가구	33.5	33.6	34.5	43.8	37.9	38.5	36.2	40.6
	비노인가구	7.8	7.5	7.2	10.1	8.6	6.9	6.6	7.0
상대적 빈곤(중위50% 기준)									
경상소득	노인	42.3	42.3	42.6	44.9	45.1	46.4	46.6	46.6
	비노인	9.8	10.3	10.3	10.8	11.0	10.0	9.1	8.4
소비지출	노인	30.2	29.4	30.7	33.8	32.6	33.8	32.3	33.0
	비노인	5.1	4.9	4.5	5.4	5.9	4.6	3.8	3.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가구의 빈곤 규모 및 유형별 구성 비율을 파악하기 전에 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에서 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노인이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27.5%이며, 노인이 한명도 없는 가구는 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구를 100%로 보았을 때 가구유형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비노인가구주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5.7%에서 2013년에는 3.8%p 증가한 9.5%로 가구유형별 분포 추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나. 노인가구의 빈곤율 및 가구유형별 구성비율

먼저,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빈

곤율은 2009년의 급격한 상승 이후 등락하는 추이를, 비노인가구의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2013년에 전년도보다 빈곤율이 상승하였다. 상대적 가구빈곤율을 살펴 보면 경상소득 적용 노인가구 빈곤율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비지출 적용 노인가구 빈곤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2006년 대비 2013년 빈곤율은 약 2.8%p 증가하였다. 한편 비노인가구의 경우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추이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2006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두 빈곤 개념 모두에서 노인가구의 빈곤은 증가하였고 비노인가구의 빈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가구에서 가구유형별 구성비율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가구와 상대

표 5. 빈곤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구성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절대적 빈곤가구									
경상소득	노인독거	37.3	39.1	42.2	47.4	50.0	49.6	52.8	54.1
	노인부부	32.9	33.4	32.7	31.7	29.6	30.0	31.8	31.6
	기타-노인가구주	15.9	15.4	15.0	12.0	13.1	14.5	10.1	9.6
	기타-비노인가구주	13.9	12.1	10.1	8.9	7.3	5.9	5.3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지출	노인독거	38.0	36.6	41.9	43.4	42.4	40.3	45.5	45.7
	노인부부	29.5	30.2	25.9	26.7	28.9	34.0	32.9	31.6
	기타-노인가구주	14.9	16.2	14.1	14.8	15.8	15.1	12.7	12.6
	기타-비노인가구주	17.6	17.0	18.1	15.1	12.8	10.6	8.9	1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대적 빈곤가구									
경상소득	노인독거	42.8	44.3	48.4	51.7	50.0	50.5	55.2	54.8
	노인부부	30.9	32.3	28.8	28.4	28.3	29.6	29.6	29.9
	기타-노인가구주	14.1	13.5	13.9	10.8	12.6	13.2	9.3	9.8
	기타-비노인가구주	12.2	9.9	8.8	9.1	9.1	6.7	5.9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지출	노인독거	49.4	50.2	54.7	56.4	54.4	50.2	56.3	57.7
	노인부부	28.8	28.5	24.9	25.1	25.4	31.1	30.5	28.7
	기타-노인가구주	10.8	12.3	10.9	10.2	11.8	12.4	7.6	8.1
	기타-비노인가구주	11.0	9.1	9.5	8.4	8.3	6.3	5.5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적 빈곤가구 모두에서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 적용 시 절대적 빈곤인 노인독거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3%에서 2013년 54.1%로 1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른 가구유형이 노인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지출 적용시 빈곤인 노인가구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빈곤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상소득 적용 시와는 다르게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도 소득과 지출 적용에 상관없이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가구는 빈곤층을 구성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 노인가구에 노인독거가구의 구성비율의 증가와 앞에서 살펴본 전체 가구에서 노

인독거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가구유형별 평균 소득 증가율⁷⁾에서 노인독거가구의 낮은 증가 수준을 볼 때 노인가구의 빈곤율 상승에는 빈곤한 노인독거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빈곤 및 비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

가. 소득 특성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구분한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에 대해 각각의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항목별 소득의 구성 비율 추이와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공적이전의 비중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적이전(23.4%), 근로소득(15.3%), 사업소득(13.5%), 재산소득(2.0%)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가구의 2006~2013년 동안 소득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은 큰 폭

으로 증가하였지만 사적이전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 또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비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면, 빈곤 노인가구보다 월등히 높은 근로 및 사업소득 구성비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빈곤 노인가구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공적이전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및 경과를 통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수급률 증가와 함께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⁸⁾. 하지만 저소득층의 중요한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수급가구중 노인세대 가구⁹⁾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비빈곤 노인가구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공

7)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2006년 대비 2013년의 경상소득(균등화 적용, 균등화에 대한 설명은 '지출특성' 부문 참조)의 증가율을 구한 결과, 비노인가구는 약 31% 증가한 반면, 노인가구는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증가율이 약 19%로, 가구유형별 증가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8) <참고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률

(단위: 명,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적연금	870,495	1,079,922	1,252,152	1,432,387	1,606,024	1,800,167	2,050,717	2,299,544
	(19.0)	(22.4)	(25.0)	(27.6)	(30.0)	(31.8)	(34.8)	(36.0)
기초노령연금	-	-	2,897,649	3,630,147	3,727,940	3,818,186	3,933,095	4,052,536
			(57.2)	(68.9)	(67.7)	(67.0)	(65.8)	(64.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년

9) e-나라지표(www.index.go.kr)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에 따르면 노인세대 가구는 '09년 약 244.5백가구, '10년 243.7백가구, '11년 237.2백가구, '12년 236.6백가구, '13년 235.6백가구이며, '14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236.5백가구로 나타남. 한편, 전체 수급가구는 '09년(882.9백 가구)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14년(814.2백 가구)에 다소 증가함(전년 대비 3.6백 가구 증가).

적이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금 제도의 성숙도 높지 않아 수급률 및 실질소득대체율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초노령 연금의 보장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 활동참여로 인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에서의 비중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 비중의 증가폭은 빈곤 노인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이를 볼 때 사적이전의 감소와 공적이전의 증가

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¹⁰⁾.

2013년 기준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만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빈곤가구보다 비빈곤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독거가구가 65세 이상인 고령자이면서 1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높은 사적이전 비중은 소득구성 추이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사적이전 감소경향으로 볼 때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을 확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빈곤상태인 기타 노인가구는 노인

표 6.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추이(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빈곤 노인 가구	근로소득	21.4	21.2	21.4	21.8	19.7	17.5	17.2	15.3
	사업소득	15.6	15.3	12.0	11.2	11.4	10.3	11.5	13.5
	재산소득	1.0	1.2	1.3	1.0	1.4	1.0	1.4	2.0
	사적이전	38.1	37.5	34.0	28.1	29.5	30.2	26.1	23.4
	공적이전	23.9	24.8	31.3	37.9	38.0	41.0	43.9	4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빈곤 노인 가구	근로소득	51.1	49.8	49.1	51.0	52.2	51.9	53.1	51.1
	사업소득	24.1	23.2	23.9	23.8	22.9	22.5	21.4	20.6
	재산소득	1.2	1.7	1.5	1.1	1.1	1.1	1.8	2.0
	사적이전	12.9	13.0	12.9	9.7	8.7	8.9	8.7	9.1
	공적이전	10.7	12.3	12.6	14.4	15.1	15.5	15.0	1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 공적이전의 사적이전 구축효과는 별도의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 관계로 관련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음. 관련 내용은 '강성진·전영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10권 제1호' 등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표 7. 빈곤 노인가구와 비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구성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가구주		기타-비노인가구주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근로소득	9.5	16.8	12.9	31.3	17.0	56.6	43.2	67.6
사업소득	9.8	15.6	16.3	24.4	17.1	19.7	11.8	20.2
재산소득	1.5	5.8	2.9	3.6	2.0	1.3	0.7	0.5
사적이전	29.0	31.3	22.4	9.7	21.7	7.1	8.8	4.2
공적이전	50.3	30.5	45.5	31.1	42.2	15.3	35.5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 가구주인 경우 공적이전의 비율이, 노인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누구냐에 따라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노인 가구유형별 공적이전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에서 비빈곤인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빈곤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빈곤상태의 노인독거가구는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사회수혜금 순으로 공적이전 구성 비중이 높았다. 한편, 노인부부가구 중 비빈곤인 경우 공적연금의 구성이 80%에 가깝지만 빈곤인 경우 35.5% 불과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가구의 경우 빈곤과 비빈곤 모두에서 기초노령연금보다 사회수혜금과 공적연금의 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인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이 공적연금보다 높은 것은 이들이 과거에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또는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로 한국의 낮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을 꼽을 수 있다. OECD에서 발간한 “Pension at a Glance 2013”에 의하면, OECD 34개국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에 있어 공적이전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소득의 58.6%인데 비해 한국은 그것에 크게 못 미치는 16.3%에 불과하다. 한국의 공적이전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으며 이를 보완할 정부의 복지지출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결정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인데다가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이 포함된 빈곤층에 대상의 복지급여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행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급여수준이 높아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어 욕구별 급여 도입과 부양

표 8. 노인 가구 유형별 공적이전 구성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가구주		기타-비노인가구주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공적연금	27.5	55.1	35.5	79.8	37.8	71.3	49.0	42.2
기초노령연금	46.1	16.4	41.8	6.8	25.8	9.8	20.4	20.1
사회수혜금	21.6	24.1	19.3	11.5	31.4	16.3	22.3	26.6
세금환급금	0.0	0.0	0.0	0.0	0.0	0.3	0.0	4.6
사회적현물이전	4.8	4.3	3.4	1.9	5.0	2.2	8.3	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수의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이전소득 증가를 통한 노인빈곤 완화와 함께 노인가구의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 근로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의 확대와 취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나. 소비지출 특성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

체 가구 소비지출의 17.3%로 2006년 15.4%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전체 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폭에 비해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규모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을 100%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은 2006년 11.9%에서 2013년 15.6%로 약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대비 2013년의 가구유형별

표 9. 소비지출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인가구(a)	15.4	16.4	16.7	15.7	15.9	16.2	17.7	17.3
빈곤	11.9	12.4	14.0	14.7	14.4	15.8	14.9	15.6
비빈곤	88.1	87.6	86.0	85.3	85.6	84.2	85.1	8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노인가구(b)	84.6	83.6	83.3	84.3	84.1	83.8	82.3	82.7
a + 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0. 2006년 대비 2013년의 가구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의 증가율(균등화 적용) (단위: %)

구분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노인가구주	기타-비노인가구주
전체 가구	36.5%	27.3%	30.2%	28.8%	30.4%	36.7%
빈곤가구	39.7%	40.7%	47.2%	44.4%	39.2%	33.2%
비빈곤가구	35.8%	30.0%	37.6%	26.4%	24.8%	34.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이 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 가구만을 살펴보면, 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비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빈곤 노인가구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에 대해 해당 가구들의 규모증가와 함께 소비지출 수준의 상승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노인

표 11.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대비 가구 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균등화 적용) (단위: %)

소비지출		2006년	2013년	증감분('13-'06)
		107.0	110.5	3.5%p
비노인가구	빈곤가구	62.7	66.3	3.6%p
	비빈곤가구	109.6	112.6	3.0%p
		75.1	72.3	-2.8%p
노인가구	빈곤가구	42.5	45.2	2.7%p
	비빈곤가구	86.5	85.1	-1.4%p
		63.8	62.9	-0.9%p
노인독거	빈곤가구	40.2	44.8	4.6%p
	비빈곤가구	78.0	81.2	3.2%p
		72.9	71.0	-1.9%p
노인부부	빈곤가구	41.2	45.0	3.8%p
	비빈곤가구	88.8	85.0	-3.9%p
		73.4	72.4	-1.0%p
기타-노인가구주	빈곤가구	43.5	45.8	2.3%p
	비빈곤가구	83.8	79.1	-4.7%p
		86.4	89.4	2.9%p
기타-비노인가구주	빈곤가구	50.6	51.0	0.4%p
	비빈곤가구	90.9	92.4	1.5%p

주 : 가구 균등화가 적용된 소비지출 평균값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수준을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수준과 비교해 보았다. 전체 가구와 노인가구는 가구규모 및 가구원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적용된 균등화지수를 통해 전체 가구 및 가구유형별 평균 지출을 계산 후 전체 가구대비 가구유형별 평균 소비지출비율을 구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평균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의 72.3% 수준이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의 62.9% 수준이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이보다는 조금 높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의 71% 수

이다. 기타-비노인 가구주를 제외하고 전체 가구 평균 지출 대비 가구유형별 평균 지출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에서 빈곤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의 45.2%에 불과하지만, 전체 가구 평균 지출 대비 가구유형별 평균 지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가구에서 노인의 소비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노인가구 내 빈곤층의 소비지출수준은 다소 높아진 것이다. 앞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 빈곤가구의 소비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빈곤

표 12. 노인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구성(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기타 노인가구주		기타 비노인가구주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0	17.6	18.4	26.9	22.6	28.0	22.1	28.7	18.7	24.5	18.7	24.5
2.주류및담배	1.1	1.9	1.3	1.8	0.9	1.2	1.3	1.8	1.4	2.2	1.4	2.2
3.의류및신발	7.1	5.3	5.6	3.4	4.9	3.0	4.8	2.8	6.3	4.8	6.3	4.8
4.주거 및 수도광열	10.6	16.9	14.9	20.5	25.1	24.9	16.9	18.6	14.3	17.2	14.3	17.2
5.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9	2.6	4.3	4.1	4.5	4.0	4.8	4.3	3.9	4.0	3.9	4.0
6.보건	5.9	7.8	10.1	17.3	12.7	17.9	13.5	20.3	9.4	12.7	9.4	12.7
7.교통	12.7	9.5	11.4	5.6	5.6	3.7	9.9	6.0	11.0	6.9	11.0	6.9
8.통신	6.2	7.7	5.3	4.1	3.1	3.1	3.9	3.5	6.3	5.5	6.3	5.5
9.오락·문화	5.8	5.3	4.8	4.1	5.1	4.2	5.4	4.2	4.4	3.7	4.4	3.7
10.교육	11.9	8.3	4.7	1.3	1.2	0.0	0.3	0.1	3.3	4.0	3.3	4.0
11.음식·숙박	13.4	10.3	11.2	5.6	7.0	4.0	9.2	5.1	12.9	8.2	12.9	8.2
12.기타상품 및 서비스	8.3	6.8	7.9	5.5	7.3	6.0	7.9	4.6	8.0	6.3	8.0	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노인가구의 소비 욕구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가구 유형별 소비지출의 구성을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비교해보면 빈곤층의 소비지출 구성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같은 빈곤가구라도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 가구보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비 등과 같은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 및 오락·문화, 교통 및 통신, 교육부문의 경우 비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소득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인빈곤층이 생계와 연관된 식료품·비주류 음료비 및 주거비, 보건비 등 필수적인 부문에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빈곤 노인가구의 평균 지출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금액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마저 충분히 지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모든 유형의 빈곤가구에서 식료품·비주류 음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독거가구를 제외하고는 식료품·비주류 음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주요 소비지출 품목으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비는 모든 유형에서 빈곤층의 구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및 광열수도비는 노인독거가구를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구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비의 경우도 모든 경우에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

품·서비스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비빈곤층의 구성비율이 빈곤층의 구성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나가며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소비지출 빈곤율이 약 41%라는 것은 노인가구중에서 절대적 기준보다 적게 소비하는 가구의 비율이 40%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06년에 비해 약 7%p 증가한 것인데,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2006년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 대비 노인가구 평균 소비지출은 약 75.1%였지만 2013년에는 그 비율이 72.3%로 소폭 하락하였다. 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 역시 비노인가구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와의 지출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효용은 소비와 여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 또는 소득은 그 자체로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소비와 여가를 선택하게 하는 주요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여가와 소비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공급에 참여하는 측면이 강하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필수적인 소비만을 하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에 속

한 노인들에 대해 소득이전을 통한 빈곤완화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효용증대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좀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의 강화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빈곤가구의 소비지출 진작을 통한 효용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가구가 노인 비빈곤가구에 비해 낮은 구성 비율을 보인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부문 등에 대해 관련 바우처 제도 지원 등을 통한 소비촉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가구에서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비교해 보면 빈곤층의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노인빈곤가구의 얼마 되지 않은 소득을 감안할 때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한 기타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¹¹⁾.

최근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독거가구의 빠른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가구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균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고 소득원의 대부분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유 재산이 없을 경우 정부의 공적이전의 확대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인독거가구는 물론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에서 이미 65세가 넘는 빈곤 상태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복리급여확대, 일자리 관련 사업의 확대, 소비지출부문에 대한 바우처 및 현물지원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중 복지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작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노인빈곤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맞춤형 급여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수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세대 가구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맞춤형 급여 체계하에서는 기준선의 다양화로 인해 전체 수급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나타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감소추세가 기준선 수준에 의한 것이라면, 상대 기준선 적용으로 인해 노인수급자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와 제도에 대한 평가 이후에 부양의무기준의 추가적 완화와 노인특성을 고려한 급여 기준선의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인빈곤문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기초연금을 기본축으로 이 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특성을 고려한 빈곤완화 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들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가구의 빈곤현황 및 소득과 지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확보와 이를 통한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엄정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둔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1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2012~2014년) 동안 60대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의 증가율은 약 19%로 부채 점유율이 1% 미만인 30세 미만 가구주를 제외하고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